

우리는 늘 받은 만큼 되갚는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

고 재 흥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실험 1의 목적은 두 사람이 상대방과 이득과 손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아울러 부적 상호성과 정적 상호성 규범 중 어느 것이 더 잘 지켜지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호성 규범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지 혹은 대략적(과소부합과 과대부합)으로 지켜지는 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득만큼 그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상호성 규범이 비교적 정확하게 준수됨을 볼 수 있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험자들은 그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는 약간 더 작은 피해를 되돌려 줌으로써 과소부합 상호성 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실험 2의 목적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실험 2의 결과, 피험자들은 무갈등 상황에서보다는 갈등 상황(즉 zero-sum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이득을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보다 작은 보상을 줌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교환관계에서 사람들은 상호성 규범은 잘 준수하는 듯 하나,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특성과 상황요인(예: 갈등)에 따라 그에게 되갚는 형태가 달라짐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이론적 및 실용적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해서 는 안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사회적 기준들을 규범(norm)이라 한다(Rossi & Berk, 1985). Sherif(1965; Sherif & Sherif, 1964)는 사회규범을 개인의 행위결과들을 근거로 표준화된 행위 준거로 보았다. Sherif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규범은 구성원들에게 허용되

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 다른 연구자들도 사회규범을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규칙으로(예: Baron & Byrne, 1994), 혹은 널리 공유된 기대(예: Gergen & Gergen, 1981)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규범을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관해 집단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다(Cialdini, Reno, & Kallgren, 1990; DeRidder, Schrujver, & Tripathi, 1992; Ferguson & Rule, 1983; Tedeschi &

*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경남대의 김연주, 홍미선 선생과 공모자 역할을 해 준 심리학과 여러 학생께 감사드린다.

Felson, 1994).

규범의 종류

일반적으로 규범은 “노인에게 공경하라”와 같이 바람직한 행동들을 일러주는 규정적 규범(prescriptive norm)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와 같이 나쁜 행동을 일러주는 금지적 규범(proscriptive norm)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사회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Shaffer(1983)는 심리학자들이 내린 사회규범의 정의들을 비교하여 이것들을 다음 6개의 개념적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이 차원들은 기본 기능에 따른 분류(규정적-금지적 규범), 이론적 지향에 따른 분류(집합적-개인적 규범), 조정하는 행동영역에 따른 분류(적절-부적절 규범), 조정하는 행동의 세부성에 따른 분류(포괄적-세부적 규범), 명시성에 따른 분류(암묵적-명시적 규범), 및 강요정도에 따른 분류(구체적-추상적 규범) 등이다. 사회규범의 수가 많고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규범이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나 집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중의 하나가 집단성원들이 그 집단의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규범이다(Deutsch, 1975).

보상들을 할당하는데는 여러 규범이 사용될 수 있지만, 많은 이론가들이 형평규범(norm of equity)과 평등규범(norm of equality)을 중시하고 있다(장성수, 1987; Leventhal & Michaels, 1969;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전자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하는 성과는 그가 투자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인 반면에 후자는 개인들의 성과는 그가 투자한 비율과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규범이다. 장성수(1987)는 집단성원들간의 응집성이 큰 경우는 평등규범이 선호되는 반면, 응집성이 작은 경우는 형평규범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보상을 다 차지하는 권력규범(power norm),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몫을 주는 마르크스 규범(Marxian norm),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몫을 양보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규범(social responsibility norm), 및 서로가 상대방에게 주는 몫이 똑같아야 한다는 상호성 규범(reciprocity norm) 등이 있다(Forsyth, 1990).

상호성 규범

사회교환(social exchange) 관계에서 가장 흔히 존재하는 규범이 상호성 규범(norm of reciprocity)이다(Goullder, 1960). 상호성 규범이란 (1)사람들은 자신을 도운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를 도와야 하고, (2)자신을 도운 적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규범이다. Goullder(1960)는 상호성 규범을 사회교환 관계에서의 보편적 도덕 규범으로 보았다. 물론 상호성 규범이 그 개인의 문화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게 기능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회의 도덕 규약(codes)에 존재하는 ‘중요 요소(principal components)’ 중의 하나로서, 이는 개인의 가치체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p.171).

Tedeschi와 그의 동료들(Tedeschi, Gaes, & Rivera, 1977, Tedeschi, Smith, & Brown, 1974)은 상호성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남의 호의를 호의로 되갚아야 하는 정적 상호성(positive reciprocity)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 상호성(negative reciprocity)이다. 전자는 상대방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누가 당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들도 또한 그만큼의 피해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적 상호성은 보답 혹은 보은(報恩)이란 용어로, 부정적 상호성은 복수 혹은 보복(retaliation)이란 용어로 통용된다. 정적 상호성을 잘 나타내는 경우는 “당신이 나의 등을 긁어 주면, 나도 당신의 등을 긁어 주겠다”이고, 부정적 상호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모세의 율법(Mosaic law)이다.

여러 사회심리학자들도 여러 문화권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기 다른 두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하나는 도움 행동(helping behavior) 영역이다. 도움행동을 다룬 많은 연구들(예: Berkowitz & Friedman, 1967; DePaulo, Brittingham, & Kaiser, 1983)에서 정적 상호성 규범

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Regan (1968)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여러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을 도운 사람을 다음 기회에 더 많이 돕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예: Komorita, Park, & Hulbert, 1992).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을 지속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요인으로서 (부적) 상호성 규범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서로에게 전기쇼크를 주도록 되어 있는 한 실험에서 자신에게 많은 전기쇼크를 준 상대방에게 많은 전기쇼크로 복수함이 밝혀졌다(Berkowitz & Geen, 1962; Buss, 1961). 그러나 죄수 딜레마 게임(PDG; Prisoner's Dilemma Game)을 사용한 Kelley와 Stahelski(1970a, 1970b, 1970c)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적 상호성(경쟁자를 만나 경쟁하는 것)이 정적 상호성(협동자를 만나 협동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처음부터 경쟁적 반응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매우 협동적인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경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적 상호성 규범을 따른다면, 이러한 경쟁자들도 협동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경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Kelley와 Stahelski는 경쟁자가 협동자를 만나 자신의 행동전략을 경쟁에서 협동으로 수정하는 경향성(이를 행동동화-behavioral assimilation-라 부름)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협동 지향의 개인이 현재의 상호작용을 그만 둘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좋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경쟁적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은 협동적 전략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부적 상호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arner & Deutsch, 1974; Miller & Holmes, 1975), 또 다른 많은 연구결과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적 상호성이 보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Carroll, 1987; Schlenker & Goldman, 1978). 고재홍(1995, 1996)은 많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가해자가 끼친 피해의 크기에 따라 그에게 부여되는 처벌크기가 커지는 원인의 기저에는 사람들이 지닌 상호성 규범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개인차의 문제를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호성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Sokolovsky, 1978; Rook, 1987; Tolsdorf, 1976). Rook(1987)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중 고독한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것보다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되갚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Greenberg와 Westcott(1983)에 따르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를 creditors라 부름)은 다른 사람에 비해 과대 상호성을 의무로 생각하여 자신이 받은 것보다 늘 더 많이 되갚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차 변인 이외에도 상호성 규범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무감 크기는 여러 상황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은 경우가 작은 호의를 받은 경우보다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지켰다(Greenberg & Frisch, 1972). 또한 상호성 규범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만 되갚는 반면, 그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Goranson & Berkowitz, 1966). 상호성 규범은 상호 작용하는 양자의 관계 유형에 따라서도 지켜지는 정도가 다른 것 같다. Gouldner(1960)가 지적한대로 대인관계가 발전되는 초기에는 과대 상호성이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자가 가까운 관계(예: 친구)에서 보다는 교환적 관계(예: 사업 상대)에서 상호성은 더 잘 지켜졌고, 가까운 관계에서도 가족들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더 잘 지켜졌다(Clark & Mills, 1979; Rook, 1987).

Gouldner(1960)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상호성 규범을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로 교육받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을 지키려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예: Cotterell, Eisenberg, & Speicher, 1992) 혹은 사회교환관계에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하기 위해(예: Lind & Tyler, 1988), 상호성 규범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대인관계에서 양자간의

1) 이들은 남에게 받은 도움을 부담스러워 하고, 그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Eisenberger, Cotterell, & Marvel, 1987 참조).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진다면, 부적 상호성보다는 정적 상호성이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 (정적) 상호성 규범을 잘 지키는 친구들간에 좋은 감정이 높았다(Rook, 1987). 또한 미래의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적) 상호성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Sagan, Pondel, & Witting, 1981). 그러나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진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적게 배정하려는 이유를 상호성 규범에서 찾으려 할 것이므로 오히려 부적 상호성 규범이 정적 상호성 규범보다 더 잘 지켜질 가능성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피해에 해당하는 크기의 도움이나 피해를 상대방에게 되갚을 수도 있고(정확한 상호성; exact compensation),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게(과대부합 상호성; overcompensation) 혹은 더 적게(과소부합 상호성; undercompensation) 되갚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는 정적 상호성과 부적 상호성 규범이 모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상호작용에 포함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상호성은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있다.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상호성 규범을 정확히 따른다면, 도움은 항상 같은 크기의 도움을 만나게 될 것이며, 약한 위협은 악한 재위협을 되돌려 받을 것이며, 공격은 그 만큼의 반격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처럼 정확한 상호성이란 개인들이 그들이 받은 보상과 피해의 양을 정확하게 부합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옆집에서 떡을 주면, 그 집에 술을 사서 보내는 경우처럼, 많은 경우에 주고받는 거래가 비수량적인 것이므로 사람들은 대체적인(rough) 상호성 규범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Youngs, 1986). 즉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은혜나 피해를 그보다 더 큰 보답이나 보복으로 돌려주거나(과대부합) 혹은 더 작은 것을 돌려 줄 수도 있다(과소부합).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상호성을 규범이 같은 정도로 지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호성 규범을 지켜지려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의 효과에 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호성 규범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무감 크기는 여러 상황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DePaulo 등(1983)의 연구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받은 경우에 수혜자는 빚진 느낌(feeling of indebtedness)을 크게 받았다. 또한 주고받는 교환의 크기도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큰 호의를 받은 경우가 작은 호의를 받은 경우보다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지켰다(Greenberg & Frisch, 1972). 한편 상호성의 대상이 일반화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만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고, 그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고(예: Goranson & Berkowitz, 1966), 어떤 연구에서는 수혜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에게도 그 도움을 되갚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예: DePaulo et al., 1983).

갈등과 상호성 규범

Forsyth는 갈등을 “언어, 정서, 및 행위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1990, p.353). Raven과 Kruglanski(1970)는 “실제적이거나 원했던 반응들의 부조화에서 생기는 둘(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실체들(개인, 집단, 더 큰 조직체) 사이의 긴장”이라고 갈등을 정의하였다(p. 70). 반면에 오래 전에 Deutch(1949)는 갈등상황을 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에 대해 “경쟁적으로 상호의존된(contriently interdependent)”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갈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Baron & Byrne, 1994 참조). 그 하나는 합영(zero-sum) 갈등이다. 이는 한쪽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한쪽의 피해나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고, 대개의 상호경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 두 팀이나 바둑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은 합영 갈등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 갈등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합영(non-zero sum) 갈등이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한쪽은 손해인 상황이 아니다. 때로는 모두에게 이득일 수도 있다. 양측은 공동의 이득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예는 죄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과 사회적 딜레마 상황(social dilemma,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다 보니 공공의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다. 두 종류의 갈등 중 합영 상황이 진정한 의미(즉, 싸운다는 의미)의 갈등 상황이다. 그러므로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합영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Youngs(1986)는 상호작용하는 당사자간의 갈등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서 상호성이 다른 형태를 띠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그는 여성 피험자들로 하여금 한 실험공모자와 인터콤(intercom)을 통하여 PDG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공모자와 피험자가 몇 시행을 하는 동안 그들은 파트너에게 “당신이 다음 회에 1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전체 점수에서 ___ 점을 가지겠다”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주었다. 서로는 괄호 속에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싶은 벌금의 크기를 채워 넣었다. 만일 파트너가 자신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경고한 것에 따라 할 수 있었으나 벌금크기는 자신이 경고한 것과 똑같은 필요는 없었다.

Youngs는 대인관계에서 부적 상호성 규범이 작동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공모자가 피험자에게 위협을 자주 보냈을 수록, 피험자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위협을 더 자주 보냈다. 또한 피험자에게 많은 벌금(처벌)을 물린 공모자는 마찬가지로 피험자로부터 많은 벌금을 추정 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의 크기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그것과 동일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것이었다. 즉 상대방(공모자)이 자신에게 보낸 위협과 처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그것보다는 약간 더 큰 위협과 처벌로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가 자신에게 보낸 위협과 처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작

은 위협과 처벌로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Youngs는 상대방의 위협과 처벌이 낮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큰 위협과 처벌은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하나의 경고 역할을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위협과 처벌이 높은 경우에서의 그것보다 작은 위협과 처벌을 보냄으로써 그것을 화해의 제스처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예상되는 상대방과의 갈등 크기에 따라 보복의 크기를 조정하는 듯 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남에게 받은 만큼 되 갚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호성 규범이 부각되는 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호성 규범을 부각시키는 여러 상황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사람간에 존재하는 갈등의 크기일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의 준수 여부는 양측의 갈등은 증폭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Forsyth, 1990).

갈등 상황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목표나 가치를 부각시키도록 만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규범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Kunda(1990)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그의 사고와 추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규범에 주목하고, 이를 준수하려 할 것이다. 요약하면,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호성 규범에 주목하게 되고, 이때 상호성 규범이 잘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현재로서는 실제의 보상과 부담이 거래되는 장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양자간에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정확히 준수되는 지를 밝힌 실험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당신에게 100만원 상당의 도움을 주면, 후에 100만원 상당의 도움으로 그에게 보답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보답할 것인가?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에게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면,

표 1. 자신이 받은 것과 주는 보상의 크기로 구분한 부합의 종류

종 류	상대방에게 주는 보상의 크기		
	받은 것보다 적음	받은 것과 동등	받은 것보다 많음
피해인 경우	과대부합	정확한 부합	과소부합
이득인 경우	과소부합	정확한 부합	과대부합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Goulder(1960)가 주장한대로 상호성 규범이 보편적 도덕규범이라면, 정적 상호성과 부적 상호성이 같은 정도로 잘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크게 하기 위해 상호성 규범을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면, 정적 상호성의 경우는 과소부합(즉, 자신이 받은 도움보다는 더 작은 도움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나타나고, 부적 상호성의 경우는 과대부합(즉,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표 1은 상호성의 종류에 따른 부합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 문헌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똑 같은 정도로 정확히 준수되는 지 혹은 둘 모두 대략 준수되는 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상호성 규범은 다른 상호성 규범에 비해 더 잘 준수되는 지 등에 관해 경험적으로 밝힌 실험 연구는 없다. 또한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상호성 규범에 관련된 연구들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사실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간에 상호성 규범이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같은 정도로 잘 지켜지는 지 혹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켜지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성 규범이 더 잘 준수되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사회심리학 영역 내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도움 행동 영역(정적 상호성 규범)과 공격 행동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하나의 실험 설계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준수되는지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똑같은 상황을 설정해야만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하는 지, 그리고 각기 준수 형태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실험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설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 가지 관점에서 나온 각기 다른 예인들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점(동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서로 화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득은 더 큰 이득으로 되갚고(정적 과대부합 상호성) 피해는 더 작은 피해로 되갚을(부적 과소부합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예: Youngs, 1986). 두 번째 관점(이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득은 더 작은 이득으로 되갚고(정적 과소부합 상호성) 피해는 더 큰 피해로 되갚을(부적 과대부합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예: Kelley & Stahelski, 1970a, 1970b, 1970c). 세 번째 관점(학습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득은 그 만큼의 이득으로 피해는 그 만큼의 피해로 되갚을(정확한 정적 및 부적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예: Goulder, 1960).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세 관점들 중 어느 관점의 예언과 잘 부합되는지는 재미있는 관심사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1)상대방과 이득과 손실을 주고받는 두 사람간에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2)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같은 정도로 잘 지켜지는 지 혹은 서로 다른 형태로 지켜지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실험 1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호성 규범에 주목하게 되고, 이때 상호성 규범이 잘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해야 하는 경우는 부적 상호성 규범이 정적 상호성 규범에 비해 더 잘 지켜질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2를 계획하였다.

용은 다음과 같다.

실 험 1

실험 1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거나 혹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자신이 그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일정한 크기의 보상을 어떻게 자신과 상대방에게 분배하는지를 보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이 이득을 얻은 경우 자신의 이득만큼 상대방에게도 이득을 주는 지,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지, 혹은 그 보다는 작은 이득을 주는 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실험 1의 주목적이다 (피해의 경우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 이득을 이득으로 되갚는 정적 상호성과 피해를 피해로 되갚는 부적 상호성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떤 종류의 상호성이 더 잘 준수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상대방에게서 받은 점수에 대한 만족도와 공정성 지각이 상대방에게 되갚는 보상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실험 1의 피험자는 경남대에서 인간 심리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77명이었다. 이들 중 38명은 상대방(공모자)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조건에, 그리고 나머지 39명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받는 조건에 무선배정되었다. 한편 이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1점에서 10점 사이의 시험점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석하였다.

절차 피험자는 또 다른 한 사람(실제로는 공모자)과 한 조를 이루어 실험실로 인도되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서 구성되었으며, 폭 1.5m의 실험용 탁자 양편에 마주 앉도록 하였다. 각자가 앉은 탁자 위에는 필기구와 실험에 사용될 “실험 학점 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실험자는 이들에게 먼저 실험 학점 증서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 상대방과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의 목적과 개요에 대한 실험 지시문을 읽어 주었다. 지시문의 내

본 실험은 사람들마다 인지 욕구(즉, 어떤 일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려는 욕구)가 다르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예를 들어 퍼즐, 바둑)를 푸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이 지닌 인지 욕구의 크기와 과제 해결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험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각자의 인지 욕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인지 욕구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미리 준비된 문제를 읽어 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 풀었는지를 알아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역할을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문제를 읽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읽어 주는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정답 수를 보고 실험 참여 점수를 최하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실험 절차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 일 먼저 여러분은 실험자가 배포하는 인지 욕구 척도의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자가 지정하는 한 사람이 미리 준비된 두 종류의 문제(사회경제 문제와 문학예술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험자가 그 문제를 줄 것입니다. 그 문제지에는 13개의 문제가 적혀 있고, 그것을 하나씩 상대방에게 읽어 줍니다. 상대방은 각 문제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응답을 문제지 위에 적어야 합니다. 13문제가 모두 끝나면 그 문제지를 실험자에게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 실험자가 상대방의 채점 결과를 주면, 그것을 보고 응답한 상대방의 실험 학점 증서에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실험 점수를 최하 1점에서 최고 10점 사이에서 적습니다. 그러나 꼭 채점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 후, 이제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어 한 사람이 앞서 선택하고 남은 한 종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읽어 주는 차례입니다. 그 이하는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실험자는 지시문을 읽어 준 다음, 그들에게 각자의 인지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18문항으로 된 「인지 욕구 척도」를 나누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인지 욕

구 척도는 Cacioppo, Petty, 및 Kao(1984)가 작성한 18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고, 이는 본 실험을 외양상 그럴듯하게 하기 위함이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인지 욕구 척도를 모두 작성하고 난 후, 실험자는 “이제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먼저 문제를 읽어 주고, 다른 한 사람이 응답하는 순서이다. 실험자가 임의대로 먼저 문제를 낼 한 사람을 지정하겠다”라고 말한 후, 한 명을 지정하였다. 이 때 실험자는 항상 공모자를 지정하였다. 공모자에게 두 가지 문제(사회·경제 문제와 문학·예술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시하였고, 공모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 때 공모자는 미리 모의한대로 상대방(피험자)이 남학생인 경우는 문학·예술 문제를, 상대방이 여학생인 경우는 사회·경제 문제를 선택하였고, 이는 피험자의 성에 따라 까다롭게 여기는 문제를 선택하기 위함이었다.

공모자가 문제를 선택하면, 실험자는 그 문제지를 공모자에게 주었다. 문제지는 피험자가 응답하기 어려운 13문제가 적혀 있었다. 공모자가 피험자에 한 문제를 읽어 줄 때마다, 피험자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제는 피험자가 자신이 맞춘 문제 수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적 까다로운 것으로 미리 선정하였으며, 예를 들어 문학·예술 문제는 ‘가극 중 오페라는 이태리에서 시작하였고 뮤지컬은 미국에서 시작하였다’ 등이었고, 사회·경제 문제는 ‘우리 나라의 최초의 지폐는 고려 공양왕 때 만든 저화이다’ 등이었다. 각 문제에 피험자가 응답하면, 공모자는 그 결과를 답안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13문제가 모두 끝나면, 실험자는 공모자로부터 피험자의 응답이 기록된 문제지를 건네 받아 채점하였다. 이 때 채점의 결과는 피험자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모두 7개를 정답으로 채점하였다(정답 7개는 13문제의 우연 수준임).

실험자는 피험자의 실험 학점 증서에 그의 정답개수를 적어 공모자에게 주었고, 공모자에게 그것을 보고 피험자에게 줄 실험점수를 1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적도록 하였다. 공모자는 실험조건에 따라 피험자에게 2점(혹은 8점)을 적었고, 실험자는 그 증서를

본인인 피험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잠시 휴식 후, 실험자는 “자! 이제 역할을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험자에게 “이제 한 종류의 문제가 남았으니, 그 문제지를 주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며, 공모자가 선택하고 남은 한 종류의 문제지를 건네주었다. 피험자가 문제를 하나씩 읽어 줄 때마다 공모자는 무작위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13문제가 모두 끝난 후, 실험자는 공모자의 실험학점 증서에 공모자의 정답 수를 (피험자의 그것과 동일한) 7개인 것으로 채점하여 점수란에 적어주고, 역시 상대방의 실험점수를 1점~10점 사이에서 적은 후, 본인인 공모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때 피험자가 자신과 동일한 문제 수를 맞춘 공모자에게 부여한 점수가 본 실험의 종속변인이다.

각자가 실험 학점 증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으로 실험의 주요 절차는 끝났고, 그들에게 6개의 물음이 적혀있는 사후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여에 대한 감사인사와 기밀유지를 부탁하고 모든 실험을 마쳤다.

독립변인 실험 1의 독립변인은 피험자가 상대방(공모자)으로부터 받은 이득과 피해이다. 이를 조작하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본 실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20명에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에 대해 각각 7개를 맞춘 경우, 10점 만점 중 몇 점을 받는 것이 가장 공정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 가장 공정한 점수의 평균치가 5.20이었다. 이를 근거로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한 조건에서는 (그의 정답수가 7개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그에게 2점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 조건에서는 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역시 그의 정답수가 7개임에도 불구하고) 8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인 주 종속변인은 피험자가 자신과 똑같이 7개의 정답을 맞춘 공모자에게 부여한 점수(1~10점)이다. 또한 사후 질문지에서 (1)상대방이 자신에게 준 점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2)상대방은 자신이

준 점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3)상대방이 자신에게 준 점수가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4)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점수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1점(예: 매우 불만족)에서 7점(예: 매우 만족) 사이의 Likert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사용된 문제의 난이도를 알아보기 위해 (5)당신은 평소 문학·예술(혹은 사회·경제)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와 (6)상대방은 평소 사회·경제(혹은 문학·예술)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지를 역시 7점 척도상(전혀 모름 - 매우 잘 안다)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호성 규범의 판단

두 번째 시행에서 선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학생 역할을 공모자에게 준 점수를 근거로 (1)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하는 지, (2)그 상호성이 정확한 것인지, 과대부합인지, 혹은 과소부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표 1 참조). 만약 피험자가 이전 시행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2점)에 그도 상대(공모자)에게 2점을 주면 정확한 상호성이고, 더 많은 점수를 주면 과소부합, 더 적은 점수를 주면 과대부합이다. 그러나 이전 시행에서 이득을 얻은 경우(8점)에 그도 상대방에게 8점을 주면 정확한 상호성이고, 더 많은 점수를 주면 과대부합, 더 적은 점수를 주면 과소부합이다. 이는 피험자가 준 점수에서 그가 받은 점수(2점 혹은 8점)를 뺀 점수가 0에서 유의하게 이탈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았다.

결과 및 논의

상대방에게 준 점수 실험 1의 독립변인은 피험자가 공모자로부터 받은 득실이었다. 또한 종속변인은 피험자가 공모자에게 준 점수이었다. 먼저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였다, $F(1, 74)=85.08, p<.001$. 즉 이전에 공모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조건($M=4.21$)보다는 이득을 받은 조건($M=8.26$)에서 피험자들은 공모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분배하였다. 이는 보상의 분배에서 상호성 규범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이를 그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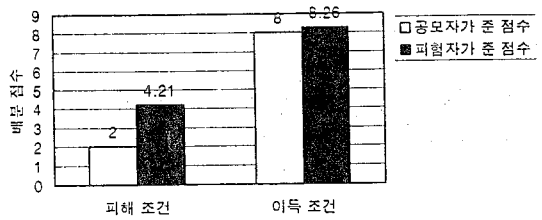


그림 1. 이득과 피해 조건에서 공모자와 피험자가 준 점수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러나 피험자가 공모자에게 준 점수에서 이전에 공모자가 피험자에게 준 점수의 차이점수도 두 조건 간에 유의하였다, $F(1, 74)=19.85, p<.001$. 구체적으로는 공모자로부터 피해(2점)를 입은 조건의 피험자들은 공모자가 자신에게 준 점수보다 평균 2.21점을 더 많이 주어 피험자 자신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피해보다는 적게 피해를 주는 과소부합을 보였다, $t(37)=5.97, p<.01$. 그러나 공모자로부터 이득(8점)을 받은 조건의 피험자들은 공모자가 자신에게 준 점수보다 겨우 평균 0.26만을 더 주어 정확한 부합을 보여 주었다, $t(38)=1.08, p>.05$.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적 상호성 규범은 비교적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부적 상호성 규범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부적 상호성의 경우(피해 조건)는 과소부합의 양상을 나타냈고 정적 상호성의 경우는 정확한 부합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보답유형의 빈도 위의 결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건별(피해 조건과 이득 조건)로 피험자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준 피험자의 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다음의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보듯, 전체적으로는 피험자들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이 59.7%(46명)로 가장 높았고, 동등하게 준 사람의 비율이 35.1%(27명)로 그 다음이었으며, 더 적게 준 사람의 비율은 5.2%(4명)에 불과하였다, $\chi^2(2)=34.46, p<.001$. 또한 동등 분배자(27명)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많이 준 사람의 수(46명)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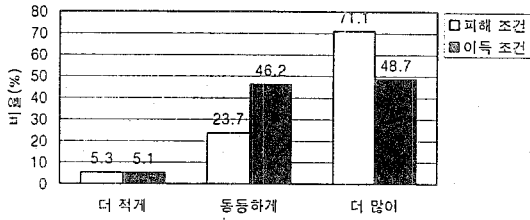


그림 2. 각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공모자에게 준 보상분배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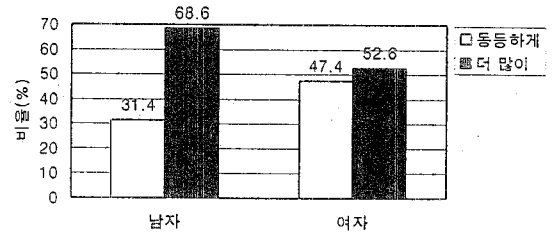


그림 3.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보상분배 형태(실험 1)

$\chi^2(1)=4.95, p<.05$.

이를 조건별로 분석했을 때, 피해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이 71%(27명)로 동등분배자의 비율 23.7%(9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과소부합 상호성이 우세하였다, $\chi^2(1)=9.00, p<.05$. 그러나 이득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과 동등분배자의 비율은 각각 46.2%(18명)와 48.7%(19명)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chi^2<1, ns$. 즉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복은 하되 그보다는 적은 피해로 보복하는 반면, 자신이 이익을 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같은 크기의 거나 약간 더 큰 보상으로 보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너그러운 되갚음(특히 피해조건에서의 과소부합)이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본 연구의 설정 상황때문일 수도 있다. 즉 실생활에서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갚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부담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10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경우, 그것을 되갚으려면 100만원을 그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는 100만원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 점수가 아닌) 실험자가 준 점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 자신의 부담(여기서는 자신의 점수감소)은 전혀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너그러운 되갚음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크다. 이 문제는 실험 2에서 다룰 것이다.)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분배형태 실험 1의 예언과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피험자의 성별 분석에서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남자 피험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이 68.6%(24명)로 동등분배자의 비율 31.4%(11명)보다 더 많았으나, 여자 피험자들은 두 경우에서 각각 47.4%(18명)와 52.6%(20명)로 비슷하였다, $\chi^2(1)=5.68, p<.05$. 이는 상대적으로 여자 피험자들이 (정확한)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사후 질문지 분석 실험 1에서는 사후질문지에 피험자 자신과 상대방인 공모자의 감정과 지각을 알아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실험도중에 제시된 문제 영역에 관련된 자신의 능력지각에서는 두 가지 문제(문학·예술과 사회·경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75)<1, ns$. 또한 실험조건별로 자신의 능력지각이 다르지 않았다, $F(1, 75)=1.09, ns$. 상대방의 능력지각에서는 문제별 차이는 없었으나, $F(1, 75)=1.02, ns$, 이득 조건의 피험자들($M=4.26$)이 피해 조건의 피험자들($M=3.74$)보다 상대방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F(1, 75)=4.20, p<.05$. 또한 전체적으로는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13문제 중 7문제를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M=2.86$)보다는 상대방의 능력($M=4.00$)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F(1, 76)=80.10, p<.001$.

그 다음으로 실험조건별로 피험자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험조건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75)=117.76, p<.001$. 즉 상대방에게서 이익을 받은 피험자들($M=5.85$)보다 피해를 입은 피험자들($M=2.61$)이 점수분배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2) 학회에서 이상의 지적을 해 주신 최상진 교수와 민경환 교수 등 여러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나타났다, $F(1, 75)=154.82, p<.001$. 그러나 역시 피해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상대방(공모자)에게 적은 점수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만족도($M=3.39$)가 이득 조건의 공모자 만족도($M=5.49$)보다 낮을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F(1, 75)=98.16, p<.001$. 이는 피해 조건의 피험자들이 상대방이 불만스러워 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적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보복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험조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상대방의 경우보다는 자신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75)=13.10, p<.001$.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2점을 받은 피험자들도 자신은 불만족스럽지만, (자비롭게도) 상대방에게는 그보다는 많은 평균 4.21점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보다는 덜 불만스러울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이다.

그 다음으로 실험조건별로 점수배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알아보았다. 조건별 점수배분의 공정성 지각은 만족도 평정치와 유사한 결과형태를 띄고 있었다. 즉 많은 점수를 배정 받을수록, 그 점수배분이 더 공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F(1, 76)=37.39, p<.001$. 재미있는 것은 피해 조건의 피험자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가 매우 불공정하다($M=3.34$)고 느끼면서도 (상대방에게도 적은 점수를 배분하여) 그도 자신만큼 불공정을 느낄 것($M=3.79$)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F(1,$

$37)=2.67, ns$. 즉 적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적은 점수를 부여하면, 상대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점수 배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여, 독립변인에 따른 세 가지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나와있다.

표 2는 실험 1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간의 부분 상관계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부분 상관계수는 위의 네 변인 중 두 변인을 통제한 나머지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먼저 독립 변인인 자신이 받은 점수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배분하는 점수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상호성 규범이 만족도와 공정성과는 무관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지각은 직접 상대방에게의 점수배분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였고, 순수한 독립변인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실험 1의 피험자가 대학생이었고, 실험에 사용된 보상이 최대 실험점수 10점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받은 만큼 그리고 그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감정에 의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점수를 배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외로 공정성 지각은 피험자 자신이 받은 점수나 그가 공모자에게 배분한 점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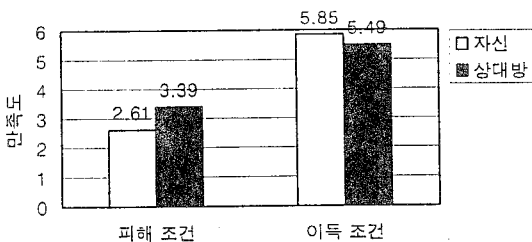


그림 4. 실험조건별 자신과 상대방의 점수배분에 대한 만족도 지각

표 2. 실험 1에서 사용된 4가지 변인간의 부분상관들

	받은 점수	만족도	공정성
만족도 지각	.52*		
공정성 지각	.18	.29*	
상대에게 준 점수	.30*	.35*	.03

* $p<.01$

실험 2

상호작용하는 두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서로 이득과 피해를 주고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혹은 무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두 종류의 상호성(정적 및 부적 상호성) 규범을 얼마나 잘 준수할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실험 2의 목적이다.

Deutsch(1949)에 따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갈등상황이다. 실험 2에서는 Deutsch(1949)의 정의에 따라 갈등상황을 조작할 것이다. 갈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Baron & Byrne, 1994 참조). 그 하나는 합영

(zero-sum) 갈등이다. 이는 한쪽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한쪽의 피해나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고, 대개의 상호경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 두 팀이나 바둑을 두고 있는 두 사람은 합영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 갈등이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합영(non-zero sum) 갈등이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한쪽은 손해인 상황이 아니다. 때로는 모두에게 이득일 수도 있다. 양측은 공동적 이득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개인적 이득만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종류의 갈등 중 합영(zero-sum) 상황이 진정한 의미(즉, 싸운다는 의미)의 갈등상황이다. 실험 2에서는 합영 상황으로 갈등을 조작하였다. 또한 이 상황은 많은 경우에 실제 일상생활 속의 거래장면과 유사한 상황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되갚으려 할 때는 자신에게 일정 크기의 부담이 부여된다. 즉 많이 갚으면 자신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러므로 실험 1(즉 많이 갚아도 자신에게는 부담이 없는 상황)과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Kunda(1990)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는 인지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그의 사고와 추리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 하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규범에 주목하고, 이를 준수하려 할 것이다. 즉,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자신의 목표와 상호성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규범적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때의 규범이 부적 상호성인 경우는 자신의 목표(상대에게 적게 줌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과 부적 상호성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범은 엄격히 지켜 질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규범이 정적 상호성인 경우는 자신의 목표와 상대방의 호의를 되갚아야 하는 정적 상호성의 준수는 서로 상충된다. 그러므로 분배자는 이를 절충하여 중간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분배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결국 이 경우는 과소부합 상호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상 황

		갈 등	무갈등
상호성 종류	정적 상호성	과소부합	정확한 부합
	부적 상호성	정확한 부합	과소부합

그림 5. 갈등 상황에 따른 상호성 규범의 준수유형(예상)

반면에 무갈등 상황에서는 상호성 규범의 준수와 자신의 인상관리란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상을 분배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화합을 증진하고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너그러운 보상분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득을 준 경우는 자신의 목표(즉 상대에게 많이 줌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와 규범의 방향이 일치하므로 그 규범(정적 상호성 규범)은 잘 준수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자신의 목표와 규범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는 적게 피해를 주는 과소부합 상호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실험 2에 참여한 피험자는 경남대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총 170명이었다. 이들 중 96명은 '갈등 조건'에 배정되었고, 다시 이들 중 절반인 48명씩을 피해 조건과 이득 조건에 각각 배정하였다. 나머지 74명은 '무갈등 조건'에 배정되었고, 이들 중 절반인 37명씩을 피해 조건과 이득 조건에 각각 배정하였다. 실험 2의 피험자들은 소정의 실험참가 점수(최하 10점~최고 20점)를 약속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절차 피험자에게는 실험이 또 다른 한 사람(실제로는 공모자)과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된다고 알려 주었고, 이미 한 사람(공모자)이 도착하여 대기 중인 실험실로 인도되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서 구성되었으며, 폭 1.5m의 탁자 양편에 마

주 않도록 하였다. 실험 1과는 달리 두 사람의 사이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커튼이 가려져 있었다. 마주 앉은 각자의 탁자 위에는 필기구와 실험에 사용될 “실험 학점 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실험자는 이들에게 먼저 실험 학점 증서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 커튼 밑으로 상대방과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의 목적과 개요에 대한 실험 지시문을 사전에 녹음하여 카세트를 통해 들려주었다.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실험은 사람들마다 인지욕구(즉, 어떤 일에 대해 꼼꼼히 생각하려는 욕구)가 다르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예를 들어 퍼즐, 바둑)를 푸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싫어하기도 한다는 가정 하에 개인이 지닌 인지욕구와 과제 해결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험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러분 각자의 인지욕구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인지욕구 점수를 개별적으로 실시한 후,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사람에게 미리 준비된 문제를 읽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 풀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역할을 바꾸어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문제를 읽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읽어주는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실험점수를 최하 0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점수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절차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실험자가 배포하는 인지욕구척도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자가 지정하는 한사람이 미리 준비된 두 종류의 문제(사회·경제 문제와 문학·예술 문제)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험자가 그 문제지를 줄 것입니다. 그 문제지에는 13개의 문제가 적혀있고 그것을 하나씩 상대방에게 읽어줍니다. 상대방은 각 문제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답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응답을 문제지위에 적어야 합니다. 13문제가 모두 끝나면 그 문제지를 실험자에게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 실험자가 상대방의 채점결과를 주면 그것을 보고 나누어드리는 용지 위에 응답한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실험점수를 최하 0점에서 최고 10사이에서 적어 실험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꼭 채점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이때 상대

방에게 부여하고 남은 점수(즉, 10 - 부여한 점수)가 본인의 실험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하면 자신은 적은 점수를 받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적은 점수를 부여하면 자신의 실험점수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자비로운 점수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 후 이제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어 한 사람이 앞서 선택하고 남은 한 종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읽어주는 차례입니다. 그 이하는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2)결국 한 사람의 실험 점수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점수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배정하고 남은 점수의 합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10점을 받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0점을 주면 20점이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0점을 받고 자신은 상대방에게 10점을 주면 자신의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하 점수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각자의 실험참여 점수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점수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최대 점수인 10점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실험점수는 20점이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최소점수인 0점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점수는 그대로 0점이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하점수입니다.)

위의 지시문은 갈등 조건의 지시문이고, 무갈등 조건의 지시문은 위에서 밑줄 친 (1)의 부분이 생략되었으며, 밑줄 친 (2)의 부분은 팔호의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그 외의 나머지 모든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독립변인 실험 2의 독립변인은 두 가지이었다. 하나는 갈등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공모자로부터 받은 득실이였다. 먼저 갈등 조건에서 실험자는 2명의 피험자(실제로 한 명은 공모자)에게 상대방이 문제를 풀고 난 후, 그 결과를 보고 점수를 부여할 때 “총 10점 중 상대방에게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점수는 자신이 갖게 된다.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런 지시는 서로 상대방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하면 자신의 점수가 적어지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적은 점수를 부여하면 자신의 점수가 많아지는 상황(즉 합영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한편 무갈등 조건에서 실험자는 “총 10점 중

상대방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점수는 실험자(교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물론 이미 상대방도 당신에게 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반납할 것이다”고 알려 주었다. 실험 2의 무갈등 조건은 실험 1과 모든 면에서 동일했으나 실험에 참여한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도록 한 것이 달랐다.

이득과 피해의 조작은 실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피험자가 푼 문제의 정답수가 공히 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득 조건에서는 선생 역할의 공모자가 먼저 피험자에게 10점 만점 중 8점을 주는 것으로, 피해 조건에서는 공모자가 피험자에게 2점을 주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나머지는 실험 1과 동일하다.

종속변인 실험 2의 모든 종속변인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설계 실험은 2(피험자가 받은 이득과 피해)×2(갈등의 유무)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로 계획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피험자가 받은 보상의 크기(생각했던 것보다 큰 점수를 받는 경우 ‘이득’ 조건,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점수를 받는 경우 ‘피해’ 조건)를 다르게 하여 조작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피험자와 공모자가 받는 보상의 크기를 합영 상황과 비합영 상황으로 다르게 하여 조작하였다. 여기서 합영 상황은 갈등이 있는 조건이고, 비합영 상황은 갈등이 없는 조건이다.

결과 및 논의

상대방에게 준 점수차이 실험 2의 독립변인은 두 가지이었다. 하나는 갈등의 유무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피험자가 이전에 공모자에게서 받은 득실이었다. 종속변인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공모자에게 준 점수이었다. 먼저 첫 번째 독립변인인 갈등의 유무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166)=44.00, p<.001$. 즉 갈등 조건의 피험자들($M=4.61$)은 무갈등 조건의 피험자들($M=6.19$)보다 상대방에게 적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공모자

에게 준 점수는 이전에 공모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조건($M=3.09$)보다는 이득을 받은 조건($M=7.51$)에서 더 많았다, $F(1, 166)=351.31, p<.001$. 이는 실험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보상의 분배에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갈등과 피험자가 받은 득실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ns$.

다음의 표 3은 각 조건별 피험자가 공모자에게 배분한 점수에서 자신이 공모자에게서 받은 점수를 뺀 차이점수의 평균과 t 검증의 결과이다. 차이점수의 전체 평균은 0.31로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점수를 상대방에게 주었다, $t(170)=2.12, p<.05$.

갈등의 유무에 따라 볼 때, 전체적으로 갈등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와 상대방에게 준 보상의 크기의 차이($M=-0.31$)가 매우 작았으나, $t(95)=1.69, ns$, 무갈등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보다 상대방에게 준 보상의 크기가 평균 1.12점 더 많았다, $t(73)=5.46, p<.01$. 이는 갈등 조건에서는 정확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는 반면에 무갈등 조건에서는 대략적인 상호성 규범(과대부합 상호성)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험자가 받은 이득과 피해별로 구분해 볼 때, 피험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조건에서는 갈등 조건과 무갈등 조건 모두에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이 주었으나, 이러한 관대한 보답의 크기는 갈

표 3. 조건별 피험자 자신이 받은 점수와 준 점수의 차이

조 건 들	<i>n</i>	<i>M</i>	<i>SD</i>	<i>t</i>
갈등 조건				
피해 조건	48	0.56 ^a	1.07	3.64*
이득 조건	48	-1.19	1.89	-4.36*
전 체	96	-0.31	1.79	1.69
무갈등 조건				
피해 조건	37	1.84	2.19	5.11*
이득 조건	37	0.41	0.64	3.90*
전 체	74	1.12	1.76	5.46*

^a 평균치가 양수이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 것임.

* $p<.01$.

등 조건($M=0.56$)보다는 무갈등 조건($M=1.84$)에서 더 많았다, $F(1, 83)=11.91, p<.001$. 한편 피험자 자신에게 이득을 준 조건에서는 갈등 조건($M=-1.19$)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적게 줌으로써 과소부합을 보였으나, 무갈등 조건($M=0.41$)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약간 더 많이 주었다, $F(1, 83)=24.15, p<.0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보답유형의 빈도 전체적으로는 전체 피험자 170명 중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과 동등하게 상대방에게 주는 사람이 82명,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이 55명,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적게 준 사람이 33명이었다, $\chi^2(2)=21.26, p<.001$. 즉 정확히 자신이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주는 비율이 더 많이 주는 비율보다 높았고, $\chi^2(1)=5.31, p<.01$, 더 적게 주는 비율보다도 높았다, $\chi^2(1)=22.88, p<.001$.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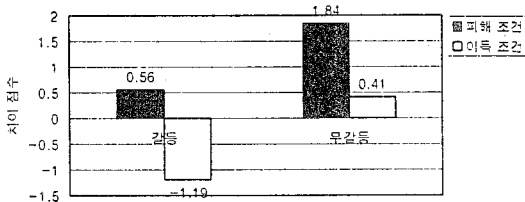


그림 6. 각 조건에서 피험자가 상대방에게 준 점수와 받은 점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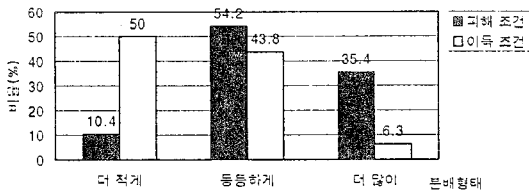


그림 7. 갈등조건에서 피험자들의 보상분배 형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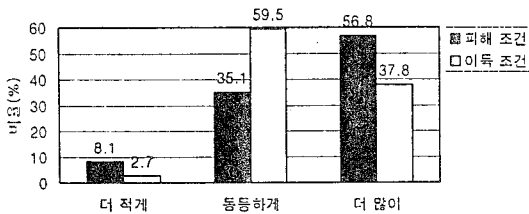


그림 8. 무갈등 조건에서 피험자들의 분배형태의 비율

교환관계에서 상호성 규범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갈등에 따른 조건별로 분석했을 때, 먼저 갈등 조건의 피해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만큼(2점)만 상대방에게 주는 동등분배자가 54.2%(26명)로 자신이 받은 것보다 적게 주는 사람의 비율 35.4%(17명)와 더 적게 주는 사람의 비율 10.4%(5명)보다 높았다, $\chi^2(2)=13.88, p<.01$. 그러나 갈등 조건의 이득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8점)보다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과 동등분배자의 비율이 각각 50.0%(24명)와 43.8%(21명)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7이다.

무갈등 조건의 피해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2점)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보상을 분배하는 사람의 비율이 56.8%(21명)로 동등분배자의 비율인 35.1%(13명)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적게 주는 사람의 비율 8.1%(3명)보다 높았다, $\chi^2(2)=13.19, p<.01$. 그러나 이득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8점)만큼만 주는 사람의 비율이 59.5%(22명)로서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 37.8%(14명)과 더 적게 준 사람의 비율 2.7%(1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chi^2(2)=18.22, p<.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분배형태 실험 1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남자 피험자들이 여자 피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관대한 분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실험 2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분배형태를 분석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적게 준 비율(총 3명)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동등분배자의 비율과 과대분배자의 비율만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갈등 조건이 포함된 실험 2에서는 세 가지 분배형태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9이다.

그림 9에서 보듯, 남녀 피험자 모두 동등 분배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이 분배한 피험자의 비율은 남자 피험자(39.6%)가 여자 피험자(21.7%)보다 더 많았다, $\chi^2(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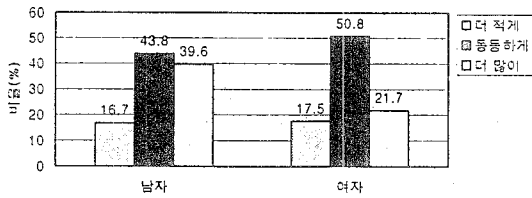


그림 9.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보상분배 형태의 비율(실험 2)

$p < .01$.

실험 1과 동일한 무갈등 조건만 분석한 경우에서도 남자 피험자들은 과대분배자의 비율이 60%인데 반해, 여자 피험자들의 비율은 42.6%에 불과하여 분배형태의 차이가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결과는 여자 피험자들이 남자 피험자들에 비해 보상분배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 질문지 분석 실험 2에서도 피험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점수배정이 끝난 후, 사후질문지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문제풀이 능력, 서로의 점수배정에 대한 만족도, 및 점수배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문제풀이 능력에서는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7개를 맞추었지만, 자신 ($M=3.49$)보다는 상대방($M=3.84$)이 제시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F(1, 166)=20.65, p < .01$. 그러나 이런 경향성은 두 사람간의 갈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F(1, 166)=15.60, p < .01$. 구체적으로는 무갈등 조건에서는 상대방의 능력($M=3.86$)을 자신의 능력($M=3.12$)보다 높게 지각한 반면($F(1, 73)=24.44, p < .01$), 갈등 조건에서는 자신 ($M=3.77$)과 타인($M=3.82$)간의 능력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1, ns$.

그 다음으로 실험조건별로 피험자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역시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피험자가 받은 이득과 피해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1, 166)=172.34, p < .001$. 이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 이득 조건(각각 $M=5.68$ 과 $M=4.03$)에 비해 피해 조건(각각 $M=3.00$ 과 $M=3.34$)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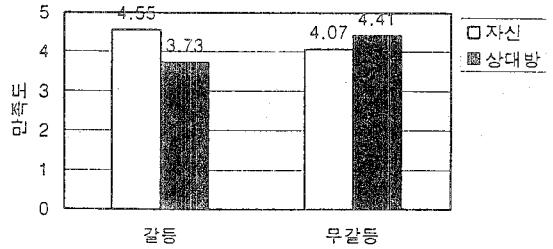


그림 10. 갈등의 유무에 따른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도

점수분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F(1, 166)=230.38, F(1, 166)=41.25, ps < .001$. 그러나 자신과 상대방의 만족도 지각은 갈등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F(1, 166)=23.24, p < .001$. 즉 갈등이 없는 조건에서는 상대방($M=4.41$)이 자신($M=4.07$)에 비해 약간 더 만족스러울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F(1, 73)=3.35, p < .08$,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자신($M=4.55$)이 상대방($M=3.73$)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반응하였다, $F(1, 95)=21.60, p < .0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0이다.

이 결과는 갈등의 유무에 따른 피험자의 상대방에 대한 점수분배 양상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갈등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적게 준 사람의 비율(30.2%)이 많이 준 사람의 비율(20.8%)보다 높았으나, 무갈등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적게 준 사람의 비율(5.4%)이 더 많이 준 사람의 비율(47.3%)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한 갈등 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평균 0.31점을 더 적게 주었으나, 무갈등 조건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평균 1.12점을 더 많이 주었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더 많이 준 무갈등 조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만족해 할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더 적게 준 갈등 조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덜 만족할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자신이 받은 점수와 준 점수의 차이크기와 만족도 차이크기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r(168)=-.51, p < .01$. 즉 자신이 상대방에게 더 적게 줄수록, 상대방에 비해 자신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예상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점수의 배분에서

도 피험자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처럼 만족도 지각에서도 피험자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 피험자들($M=4.72$)이 여자 피험자들($M=4.19$)에 비해 자신이 받은 점수를 더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62)=5.34, p<.05$. 이러한 피험자의 성 차이는 다른 조건과 상호작용을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험조건별로 점수배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여한 점수에 따라 공정성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피험자들($M=3.53$)보다는 이득을 얻은 피험자들($M=4.84$)이 자신이 받은 점수가 더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F(1, 168)=47.84, p<.01$. 한편 자신이 준 점수에 대해 상대방은 얼마나 공정하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피험자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많은 점수를 배정할수록 상대방이 더 공정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r(168)=.33, p<.01$.

표 4는 실험 2에서 조건에 따른 상대방에 부여한 점수와 사후질문지에서 얻은 종속변인들간의 관계를 부분상관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실험 1의 분석결과와 상당히 일치한다. 즉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분배하느냐의 결정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점수에 대한 만족도와 공정성 지각과는 무관하게 단지 상대방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분배했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경향은 갈등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 자신이 받은 점수와 상대방에게 준 점수의 일치도($r=.70$)가 갈등이 없는 조건에서의 일치도($r=.61$)보다 약간 크게 나왔을 뿐이다.

또한 피험자 자신이 받은 점수, 갈등의 유무, 피험자의 만족도, 및 피험자의 공정성 지각크기로 상대방

에게 부여한 점수의 크기를 예언하는 회귀분석에서도 자신이 받은 점수(회귀계수 $\beta=.79$)와 갈등의 유무(회귀계수 $\beta=.28$)만이 상대방에게 부여한 점수의 크기에 대해 예언력을 지니고 있었다, 각각 $t(168)=18.80$ 과 $t(168)=6.65, ps<.01$. 그러나 실험 1에서는 자신의 만족도가 상대방에 대한 점수배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험 2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없었다.

요약 및 전체 논의

그 동안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기 다른 두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입증하였다. (정적) 상호성 규범의 존재는 도움 행동(helping behavior) 영역에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을 도운 사람을 돕는 경향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예: Komorita, Hilty, & Park, 1991; Komorita, Park, & Hulbert, 1992; Regan, 1968). 또 다른 하나는 양측의 갈등이나 공격을 지속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요인으로서 (부적) 상호성 규범의 역할을 다루어 왔다(예: Swingle, 1970). 또한 Mikula와 그의 동료들(Mikula, 1993; Mikula & Schlamberger, 1985)도 상호성 규범의 준수가 '정의(justice)'의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사회심리학의 두 영역 내에서 상호성 규범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아도 실제의 보상과 부담이 거래되는 장면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똑 같은 정도로 정확히 준수되는 지 혹은 대략 준수되는 지, 또한 어느 하나의 상호성 규범은 다른 상호성 규범에 비해 더 잘 준수되는 지 등에 관해 경험적으로 밝힌 실험연구는 없다. 예외적으로 Youngs (1986)는 죄수 딜레마 게임(PDG)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협과 처벌을 주고받는 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상대방이 많은 위협과 처벌을 주면 피험자들도 많은 위협과 처벌로 응수하되, 그 크기는 대략 비슷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부적 상호성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이고, 직접 개인

표 4. 실험 2의 4가지 변인간의 부분상관들

	받은 점수	만족도	공정성
만족도 지각	.51*	-	
공정성 지각	.04	.38*	
상대방에게 준 점수	.64*	.02	-.01

* $p<.01$

당사자간에 이득과 손실이 오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 실험에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준 경우와 손해를 준 경우에 그도 얼마만큼의 이득과 손해를 주는 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같은 정도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상호성 규범이 모든 상황에서 똑 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두 종류(혹은 한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잘 준수되는 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가정 하에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요인들 중 두 당사자간의 갈등(자신과 상대방의 이득과 손실이 반비례하는 상황으로 조작)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험 1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환 관계에 있는 두 사람간에 보상의 분배에서 상호성 규범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피험자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보상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이전에 그가 자신에게 준 보상의 크기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피험자는 상대방에게 같은 크기의 이득을 줌으로써(정적) 상호성 규범을 비교적 정확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험자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는 약간 더 작은 피해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상호성 규범을 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교환관계에서 상호성 규범이 준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피험자들은 무갈등 상황에 비해 갈등 상황에서(부적)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사람이 갈등 상황에 놓이면 실험 1에서와 같이 피해를 받은 피험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보다는 더 작은 피해를 주는 선심(?)이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험자들은(부적) 상호성 규범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사실상 무갈등 조건만 있었던 실험 1과 실험 2의 무갈등 조건의 결

표 5. 두 실험에서 조건별로 피험자들이 되갚은 보상의 크기

	실험 1 (N=77)		실험 2 (N=170)	
	무갈등	갈등	무갈등	갈등
피해 조건	4.21	-	3.84	2.56
이득 조건	8.26	-	8.41	6.81

과와 다른 점이다. 이는 부적 상호성 규범의 준수가 갈등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자들(예: Forsyth, 1990; Youngs, 1986)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동기는 그의 인지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Kunda(1990)의 주장처럼,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는 상대방의 행동에 더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행동한 대로 자신도 그에게 행동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조건에서는 상호성 규범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과소 상호성 규범이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실험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서의 성차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여자 피험자들이 남자 피험자들보다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서는 이러한 성차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나,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이 효과의 원인추적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서로 이득과 손실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1)정확하게 상호성 규범을 준수하는 지, (2)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을 같은 형태로 준수하는 지 혹은 다른 형태로 준수하는 지, 그리고 (3)그들이 놓인 상황(여기서는 갈등 유무)에 따라 상호성 규범 준수형태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본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사회심리학 영역 내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도움 행동 영역(정적 상호성 규범)과 공격 행동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하나의 실험에서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이 준수되는 지를 다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분배라는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여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준수를 살펴봐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세 가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나온 예언들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관점(동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서로 화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득은 더 큰 이득으로 되었고(정적 과대부합 상호성) 피해는 더 작은 피해로 되었고(부적 과소부합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Youngs, 1986). 두 번째 관점(이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득은 더 작은 이득으로 되었고(정적 과소부합 상호성) 피해는 더 큰 피해로 되었고(부적 과대부합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Kelley & Stahelski, 1970a, 1970b, 1970c). 세 번째 관점(학습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득은 그 만큼의 이득으로 피해는 그 만큼의 피해로 되었고(정확한 정적 및 부적 상호성) 가능성이 있다(Goulder, 1960).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실험 1의 결과는 대체로 동기적 관점의 예언과 부합되는 것이었으나, 실험 2의 갈등 상황에서는 대체로 이기적 관점의 예언과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여러 학자들(예: Forsyth, 1990)은 (부적) 상호성 규범이 양자간의 갈등을 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갈등의 비화는 상호성 규범의 준수형태 중 과대부합 상호성인 경우에 나타나야 한다. 과소부합이나 정확한 상호성인 경우는 갈등이 최소한 더 이상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사람들이 과소부합 상호성을 선호한다면(실제로 피해 조건에서의 부적 상호성은 과소부합 되는 경향이 있었다), 상호성 규범의 존재 자체가 갈등 비화의 직접적인 중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과대부합 상호성이 존재할 때만 갈등이 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대부합 상호성을 부각시키는 조건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상호성 규범의 준수형태를 다루는 연구는 두 사람(혹은 두 집단)이 친밀관계를 지속하는지(정적 상호성이 유지될 때), 혹은 적

대관계를 지속하는지(부적 상호성이 유지될 때)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상대방의 같은 호의에도 언제 사람들은 그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고(과대부합 상호성인 경우), 언제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을 느끼는지(과소부합인 경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사후질문지의 분석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평정과 만족도는 갈등상황의 여부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보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감정은 양측이 주고받은 호의나 피해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줄 것이다. 그 외에도 상호성 규범이 정확히 준수되는 조건이 밝혀지면, 역으로 상호성 규범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갈등 상태에 놓인 개인들, 집단들, 국가들의 갈등해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교환이 이루어지는 보상의 종류에 따라 상호성 규범의 준수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점수의 분배상황에서만 상호성 규범을 다루었다. 둘째 이미 지적한 것처럼 통상 실제장면의 사회교환 관계에서는 보상의 되갚음에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1과 실험 2의 무갈등 조건에서는 점수배정자(피험자)의 되갚음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이것은 실험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른 갈등 이외에도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조건들을 밝혀냄으로써 두 종류의 상호성 규범 준수와 관련된 많은 물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람간의 일회적인 교환관계만을 다루었다는 제한을 지니고 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인관계는 일회적이기보다는 다회적이다. 만약 자신의 보복이 차후에 상대방의 더 큰 보복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대방의 권력이 큰 경우)에는 그가 자신에게 입힌 피해만큼 그에게 되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다회적 대인관계에서는 보다 많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여부가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1995). 처벌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9권 2호, 29-50.
- 고재홍(1996). 책임판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10권 1호, 1-20.
- 장성수(1987). 집단응집성이 분배원칙 선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ron, R. A., & Byrne, D.(1994).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erkowitz, L., & Friedman, P.(1967). Some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17-225.
- Berkowitz, L., & Geen, J. A.(1962). The stimulus qualities of the scapegoa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 293-301.
- Buss, A. H.(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Y: Wiley.
- Cacioppo, J. T., Petty, R. E., & Kao, C. F.(1984). The efficient assessment of need for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306-307.
- Carroll, J. W.(1987). Indefinite terminating points and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Theory and Decision*, 22, 247-256.
- Cialdini, R. B., Reno, R. R., & Kallgren, C. A. (199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15-1026.
- Clark, M. S., & Mills, J.(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ohen, C. I., & Sokolovsky, J.(1978). Schizophrenia and social network: Ex-patients in the inner city. *Schizophrenic Bulletin*, 4, 546-560.
- Cotterell, N., Eisenberg, R., & Speicher, H.(1992). Inhibiting effects of reciprocity wari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58-668.
- DePaulo, B. M., Brittingham, G. L., & Kaiser, M. K. (1983). Receiving competence-relevant help: Effects on reciprocity, affect, and sensitivity to the helper' nonverbally expressed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45-1060.
- DeRidder, R., Schruijer, S. G. L., & Tripathi, R. C. (1992). Norm violation as a precipitating factor of negative intergroup relations. In R. DeRidder & R. C. Tripathi(Eds.), *Norm viol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Deutch, M.(1949). A theory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Human Relations*, 2, 129-152.
- Deutch, M.(1975). Equity, equality, and need: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37-149.
- Eisenberger, R., Cotterell, N., & Marvel, J.(1987). Reciprocity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43-750.
- Ferguson, T. J., & Rule, B. G.(1983).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anger and aggression. In R. G. Geen & E. I. Donnerstein(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Vol. 1). NY: Academic Press.
- Forsyth, D. R. (1990). *Group dynamics*. CA: Brooks/Cole.
- Garner, K., & Deutch, M.(1974). Cooperative behavior in dyads: Effects of dissimilar goal orientations and differing expectations about partn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8, 634-645.

- Gergen, K. J., & Gergen, M. M.(1981). *Social psychology*.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Gergen, K. J., Ellsworth, P., Maslach, C., & Seipel, M.(1975). Obligation, donor resources, and reactions to aid in three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90-400.
- Goranson, R. E., & Berkowitz, L.(1966). Reciprocity and responsibility reaction to prior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27-232.
- Gouldner, A. W.(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Greenberg, M. S., & Frisch, D. M.(1972). Effects of intentionality on willingness to reciprocate a fav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99-111.
- Greenberg, M. S., & Westcott, D. R.(1983). Indebtedness as a mediator of reactions to aid. In D. Fisher, A. Nadler, & B. M. DePaulo(Eds.), *New directions in helping*(pp. 85-112). NY: Academic Press.
- Kelley, H. H., & Stahelski, A. J.(1970a). Errors perceptions of intentions in a mixed-motive gam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379-400.
- Kelley, H. H., & Stahelski, A. J.(1970b). The inference of intentions from moves in the Prisoner Dilemma Gam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401-419.
- Kelley, H. H., & Stahelski, A. J.(1970c). Social interaction basis of cooperators and competitors beliefs about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66-91.
- Komorita, S. S., Hilty, J. H., & Parks, C. D.(1991). Reciprocity and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 494-518.
- Komorita, S. S., Parks, C. D., & Hulbert, L. G. (1992). Reciprocity and the induction of cooperation in social dilem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07-617.
- Kunda, Z.(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Levental, G. S., & Michaels, J. W.(1969). Extending the equity model: Perception of inputs and allocation of reward as a function of duration and quantity of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303-309.
- Lind, E. A., & Tyler, T. R.(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Y: Plenum Press.
- Mikula, G.(1993). On the experience of injustice. In M. Hewstone, & W. Stroeb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4). Chichester: Wiley.
- Mikula, G., & Schlamberger, K.(1985). What people think about an unjust event: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logy of experiences of injusti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37-49.
- Miller, D. T., & Holmes, J. G.(1975). The role of situational restrictiveness on self-fulfilling prophec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tension of Kelley and Stahelski's triangle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61-673.
- Morse, S.(1972). Help, likability, and social influ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 34-46.
- Raven, B. H., & Kruglanski, A.(1970). Conflict and power. In P. Swingle(Ed.), *The structure of conflict*. NY: Academic Press.
- Regan, D. T.(1968). *The effects of a favor and liking on compli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ion, Stanford University.
- Rook, K. S.(1987). Reciprocity of social exchange and social satisfaction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45-154.
- Rossi, P. H., & Berk, R. A.(1985). Varieties of normative consens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333-347.
- Sagan, K., Pondel, M., & Wittig, M. A.(1981). The effect of anticipated future interaction on reward allocation in same- and opposite-sex dyads. *Journal of Personality*, 49, 438-449.
- Schlenker, B. R., & Goldman, H. J.(1978). Cooperators and competitors in conflict: A test of the "triangle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 393-410.
- Shaffer, L. S.(1983). Toward Pepitone's vision of a normative social psychology: What is a social norm?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4, 275-294.
- Sherif, M.(1965).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Y: Octagon Books Inc.
- Sherif, M., & Sherif, C. W.(1964). *Reference group: Exploration into conformity and deviation of adolescents*. NY: Harper & Row.
- Swingle, P. G.(1970). Exploitative behavior in non-zero-sum ga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21-132.
- Tedeschi, J. J., & Felson, R. B.(1994). *Violence, aggression, and coercive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edeschi, J. T., Gaes, G. G., & Rivera, A. N.(1977). Aggression and the use coercive power. *Journal of Social Issues*, 33, 101-125.
- Tedeschi, J. T., Smith, R. B. III, & Brown, R. C. Jr. (1974). A reinterpretation of research on ag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89, 540-563.
- Tolsdorf, C.(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London: Allyn & Bacon.
- Youngs, G. A. Jr.(1986). Patterns of threat and punishment reciprocity in a conflict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41-546.

Effects of the Conflict on the Use of Reciprocity Norm in Exchange Relationships

Jae Hong Ko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composing of two related experiments concerns to search the patterns of using of two reciprocity norms in the outcome exchange situation. In experiment 1 subjects overpaid or underpaid credits from their partner(confederate) than they expected, then in the next session of experiment they were told to repay credits to their partner at will. Subjects overpaid did compensate to him exactly same to their profit received before, but subjects underpaid did repay to him more credits than they recei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bjects follow the positive reciprocity norm exactly and follow the negative reciprocity norm roughly. In experiment 2 dealing with effect of conflict(manipulated with zero-sum situation) on the pattern of exchange, the conflict of two persons in exchange relationships made the reciprocity norm salient. When subjects perceive there are conflict between two person, they more followed the norm exactly than do not perceive conflict. The conflict may trigger a matching response in the size of the repayment between two persons exchanging their profits. Generally speaking, they opted for rough reciprocity norm in no conflict condition and opted for relatively exact reciprocity norm in conflict condition. Abov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s.